



안녕하세요? 10대 여자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방진영수녀입니다. 성이 좀 독특하지요. 그래서 우리 수도회 방씨는 저 밖에 없습니다. 성이 방씨라 어릴적 별명도 방구장이었던 저는 벌써 이 곳에서 파견 받아 지낸지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수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을 알기에 어떤 때는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리고, 어떤 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힘을 지닌 하느님은 어린 저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를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시절 저희 집 옆에는 목포연동성당이 있었습니다. 신자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수녀님들을 보게 되었고, 신자인 친구들이 놀자며 성당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이 제 놀이터였습니다. 놀다가 외국인 신부님께 혼도 났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추억이 되었고, 어릴 적 마음 한 칸이 늘 시렸던 제 마음에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뭘지 모를 어떤 이를 의지하였고, 그 어떤 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성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어린 저에게 하느님은 은신처가 되어주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수도회에 입회하려다가 어릴 적 보았던 수녀님들이 사신 곳에 한 번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한 번 가본 곳이 지금 제 집이 되었습니다. 그 때가 2000년 겨울입니다.



입회하는 과정도, 수도회에 들어와서도 저 자신과의 싸움으로 사는 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느님 손을 놓고 제 자신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뭐가 이쁘다고 언제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본당2곳과 본원주방, 그리고 이 곳 씨튼해바라기의 집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가출한 10대 여자청소년들이 일반 가정에서처럼 생활하고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이 곳에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며 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느님의 씨앗입니다. 가정의 불화나 폭행 등으로 상처받고 얼룩진 그들의 마음이 이 곳에서 다시 환하게 꽃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젊기에 변화도 빠르고, 성장도 빠릅니다. 많이들 얼마를 못 견디고 다시 거리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 못다 핀 그 싹들이 다른 씨앗의 거름들이 되어 이제는 씨튼해바라기의집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조금은 덜 아프고 행복해하는 아이들 뒤로 또 다시 주린 배와 상처받은 친구들이 문을 두들길 것 입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피워지도록 한 방울의 물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Hello! I am Sister Bang Jin Young living with teenage girls in the Sunflower House. My family name is unique. In our congregation I am the only one who has the last name “Bang.” Because of the sound of my name I got teased a lot when I was young.

I have been working here for 6 years. Sometimes I am surprised myself that I am a Catholic sister. I thank God for His grace to allow me to be a sister, but I feel burdened occasionally because I recognize my limitations. When I was young, God lit a fire in my heart. In my elementary school days, our sisters worked in the Yeondong parish near my house. Even though I was not a catholic, I met Sisters of Charity naturally and played with my friends in the church. The church was my playground. I was often scolded by the foreign priest of the parish when I played in the church. I remember all these things. One day, a desire started to spring up in my mind. I was relying on someone whom I had never recognized. Realizing that someone was God, I went to church by myself and finally I was baptized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God became the haven of my soul and responded to me in various ways.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I got a job. When I visited congregations, I thought that I wanted to visit the congregation of sisters whom I had met in my childhood. Even though I only visited our community once, I decided to enter the congregation. It was the winter of 2000.

It was not easy to wrestle with myself in the entrance process and also in religious life. Nevertheless, God always holds my hand even though I fight with myself. In the past, I worked at two parishes and did dietary ministry at the provincial house. Now I am ministering at Sunflower House which is a shelter with a homelike setting for runaway girls. Every day I live my life with my girls – we sometimes laugh or cry together. They are the seeds of God. I have seen that the girls suffering from family feuds or domestic violence were healed in the Sunflower House. They have bloomed like flowers in this house. Young girls change easily and grow rapidly but some girls run away from the shelter to the streets again. However, Sunflower House has become stable even though the experience of many girls leaving, our house helped others to grow. Following the girls who have been healed and are happier, other girls with wounded hearts may knock on the door of the house. Therefore, like a drop of water in the garden I will make more efforts to bloom flowers of God’s providence at Sunflower House.

